

통계청 발표 '혼인·이혼 실태'

이혼이 갈수록 늘어나 지난해 이혼율이 70년대 초반의 3배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애결혼을 했을 때가 중매결혼을 했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빨리 이혼하고, 결혼한 지 5년 이내에 이혼하는 경우가 전체의 4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재혼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결혼은 봄철에 가장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은 통계청이 혼인·이혼신고서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결혼과 이혼실태를 처음으로 분석해 20일 발표한 '혼인·이혼통계 작성결과'에서 나왔다.

이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40만4천9백쌍이 결혼하고 4만8천3백쌍이 이혼했다.

◇혼인=혼인건수는 70년대 초반 연평균 26만건에서 70년대 후반 34만건, 80년대 초반 36만9천건, 80년대 후반 39만2천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혼인 가운데 재혼 비율이 점차 늘어나, 남자는 72년의 5.4%에서 89년 7.0%로, 여자는 2.9%에서 5.6%로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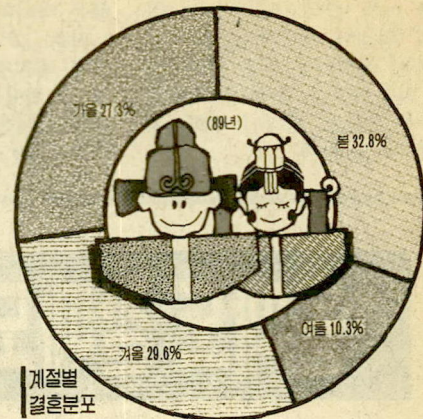
결혼철은 89년의 경우 봄이 32.8%로 가장 많고, 다음이 겨울(29.6%), 가을(27.3%), 여름(10.3%) 순으로 집계됐다. 72년에는 겨울(39.7%), 봄(26.6%), 가을(26.5%), 여름(7.2%)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도시에서는 봄철(89년 33.3%), 농촌에서는 겨울철(73.4.9%)에 결혼을 가장 많이 하고 있다.

고학력자 사이의 결혼비중이 높아져, 남녀 모두 국졸 이하가 72년의 40.4%에서 89년 2.2%로 줄어든 반면, 대졸 이상은 5.5%에서 21.0%로 늘어났다. 가장 비중이 큰 학력층은 남녀 모두 중·고졸로 89년 57.5

%를 차지했다.

결혼에 이르게 된 과정을 보면 연애결혼이 89년 현재 54.7%, 중매결혼이 39.4%로 연애결혼이 중매결혼을 앞지르고 있다. 81년에는 이와 반대로 연애결혼이 36.3%, 중매결혼이 58.4%였다.

남녀 혼인 연령은 초혼의 경우 남자는 72년 26.7살에서 89년 27.8살로, 여자는 22.6살에서 24.8살로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남자보다 여자의 혼인연령 증가폭이 더 커지고 있는데, 이는 주로 여성의 교육과 경제 활동 참여가 늘어나면서 만혼경향이 퍼지



계절별
결혼분포

이혼 급증 70년대 초의 3배

전체 이혼 중 36% 5년안에 파경 맞아 연애결혼 중매 앞질러...연령차는 축소

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재혼연령도 남녀 모두 높아지고 있다. 연령별로는 초혼의 경우 남자는 25~29살이 65.6%(89년), 여자는 20~24살이 52.7%로 제일 많다.

남녀간의 혼인연령 차이는 89년 3.3살로 72년보다 1.4살 줄어들었으며, 남자의 초혼연령이 높아질수록 남녀간 혼인 연령 차이가 커지고 있다.

◇이혼=이혼건수는 70년대 초반 1만4천건에서 80년대 초반 3만2천건, 80년대 후반 4만5천건 수준으로 계속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인구 1천명당 이혼수를 나타내는 조이혼율은 70년대 초반 0.41에서 90년 1.13으로 높아졌다. 이런 조이혼율은 일본(88년 1.26), 대만(89년 1.26)과 비슷한 수준이고, 미국(86년 4.89), 소

련(87년 3.36)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이혼연령은 남자는 89년 현재 30~39살이 50.0%, 여자는 25~34살이 59.4%로 전체의 절반 이상에 이르고 있다. 이를 세분해 보면 남자는 30~34살이 29.3%, 35~39살이 20.7%, 여자는 25~29살이 30.4%, 30~34살이 29.0%이다.

지역별로는 부산(89년 조이혼율 1.54)이 이혼율이 가장 높고, 다음이 인천(1.30), 서울·대구(1.22)순으로 대도시 지역이 높다. 70년 조이혼율이 0.76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제주를 최근 들어 0.95로 더 높아지긴 했으나, 대도시보다는 낮아졌다.

전체 이혼의 36.0%(89년)가 결혼한 지 5년 이내에 발생했으며 2년 이내도 12.9%나 된다.

이혼 사유는 부부간 불화가 83.1%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혼하기 전 결혼 기간을 보면 연애결혼을 했을 때가 7.9년으로 중매결혼을 했을 때의 9.4년보다 짧아 연애결혼이 중매결혼보다 빨리 이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 기자〉